

운정 글로벌 프로젝트 지원 사업 협약식

‘운정 글로벌 프로젝트 지원 사업’ 협약식이 지난 4월 10일, 행정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운정 글로벌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교내 공동·협동연구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융합적이고 복합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다.

2012학년도 한 해 지원예산은 총 3억 2천만 원이며, 지원 신청한 총 4팀의 연구단 중 선발된 3팀이 각 팀마다 1년에서부터 3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심사를 받고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심사는 지난 3월 26일 서면 및 발표 평가를 통해 이뤄졌으며 연구단의 우수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연구주제의 발전 가능성 등을 항목으로 신철호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평가 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연구단이 선발됐다.

심화진 총장은 “교수님들이 연구업적을 이뤄나갈 수 있는 첫 발을 마련한

것”이라며 “융합적인 학문의 변화를 수용하는 좋은 결과를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선정된 연구과제명과 연구원, 2012학년도 연구비는 다음과 같다.

윤솔지 기자

yoonsoljipress@sungshin.ac.kr



▲ ‘운정 글로벌 프로젝트 지원 사업’ 협약식 중 서명식 모습이다.

운정 글로벌 프로젝트 지원 사업

과제명	지원분야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12학년도 연구비
환경/에너지 기술을 위한 생체 모방형 및 화학 기반형 촉매와 그 반응 연구	융합·복합 연구	이철우*, 박성순, 채정현(생명과학·화학부), 홍의식(IT학부), 박경(지리학과)	1억 5천만 원
기후변화 대비 생물연구에 있어서 mobile IT device의 활용 연구	산학협동 연구	변혜원*(IT학부), 김상태(생명과학·화학부)	1억
신화를 활용한 창조적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연구 -(미토스 코드 Mythos Code) 리더십 연구	산학협동 연구	김길웅*(국어독문학과), 강혜선(국어국문학과), 심상민(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7천만 원

‘자생식물 유전체 연구단’

발족식 및 협약식

‘자생식물 유전체 연구단’ 발족식 및 협약식이 지난 2일 운정그린캠퍼스 A동 246호에서 열렸다. 자생식물이란 ‘좁은 의미로는 일정한 지역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던 토착식물, 넓은 의미로는 일정 지역에서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자라는 식물’을 뜻한다. 국가 차원에서 자생식물을 보존하고 자원화하려는 실정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대학 교수들과 외부 기관과의 협력 연구를 위해 ‘자생식물 유전체 연구단’이 발족하게 됐다.

이 연구는 우리대학 김상태, 강혜순,

강창수 생명과학화학부 교수 3명과 대학원 및 학부 연구원 8명이 참가한다.

‘자생식물 유전체 연구단’은 계놈연구재단과 협약을 맺어 상호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며 김상태 교수는 개인유전체연구소(Personal Genomic Institute; PGI-계놈연구재단 소속 기관)와 한국 자생 목련 유전체에 관한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김 교수는 “작은 시작이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자생식물연구를 주도하고, 나아가서는 꽃식물 진화의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큰 연구가 이뤄지는 연구단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



▲ 운정그린캠퍼스 A동 246호 앞에서 열린 한 판식 모습이다.

니다”라며 연구단 발족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윤솔지 기자

yoonsoljipress@sungshin.ac.kr